2019년 한일 갈등 속에서 대마도의 변화

임경화 (중앙대 접경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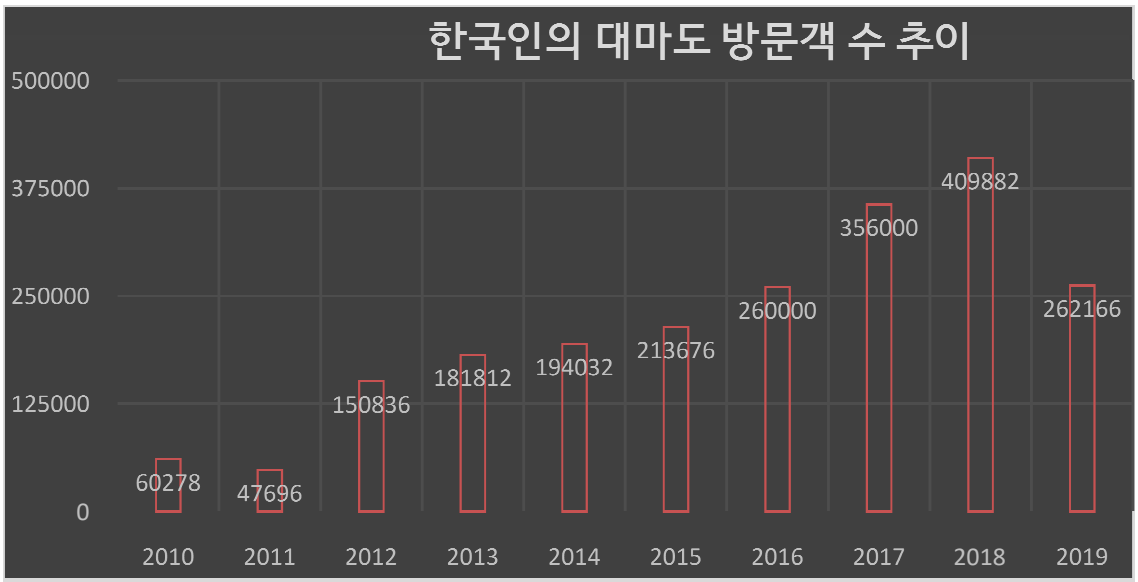
PLZ Forum for Ecozoic Era 2020

2019년 한일 무역분쟁은 일본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원료에 대한 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이 분쟁은 두 나라 사이에 축적된 기존 갈등의 완전하고 장기적인 확대를 의미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내린, 전쟁 당시 일본 제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시작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두 나라 사이의 갈등 수준을 점점 높이고 있었다. 신일본제철(Nippon Steel; 구 신일철주금 Nippon Steel Corporation)의 한국 내 자산 몰수, 2018년 12월 레이더 조준 및 조사 분쟁, 그리고 2019년 4월 한국의 후쿠시마 지역에서 해상 제품 수입 금지 등은 분쟁 가속화의 주요 이정표였다.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최종 법원 승소로 인해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 일본과 한국이 전면적인 '외교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국 간 외교 · 경제 · 군사적 이견은 마침내 완전히 가시화됐다. 국내외 언론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서둘러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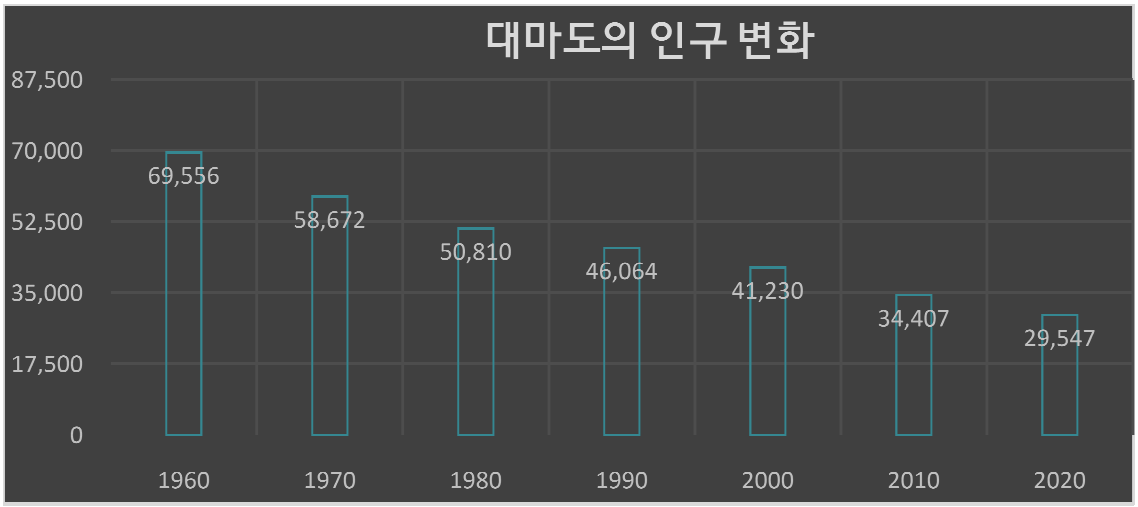
한국에서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일본은 안 돼(No Japan!)'라는 상징적 문구와 함께 이루어진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을 자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됐다. 그 결과, 자동차, 술, 의류, 관광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일본 지역 중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섬 전체가 한국 관광객이 내는 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터라 직접적이고 심한 타격을 받았다. 1999년 고속선이 부산과 대마도를 운항하기 시작한 이후 한국인 관광객 수는 2000년 약 7,000명에서 2018년에는 무려 40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 한일 갈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다. 같은 해 11월, 한국 관광객 수는 같은 달 전년 대비 약 91% 감소했다. 그 결과 2019년 한국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더구나 2020년 4월 3일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한국 방문객 모두가 입국을 거부당하면서 대마도에는 더이상 한국인 방문자가 없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대마도가 받은 한일 갈등의 영향은 즉각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났다.



올해 6월 30일 한국 공영 방송에서 소개한, 쓰레기로 뒤덮인 대마도 해변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반도와 대마도 사이의 해협을 가로지르는 대마도 해류는 남해안과 제주도의 쓰레기 일부를 대마도까지 운반한다. 대마도 주민들은 해마다 표류화물과 바닷가에 밀려온 화물(flotsam and jetsam)을 청소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최근 한일 청소년들이 함께 쓰레기를 청소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한일 교류가 막히자 '한일 교류 섬'을 자처했던 대마도는 '국경 섬'이 됐다. 대마도는 한일 갈등의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섬이 겪은 그동안의 극적인 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람, 재화, 돈의 흐름이 멈추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자 이 섬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섬의 6개 읍(town)이 한 도시로 통합된 2004년 이후, 대마도 시는 올해 처음으로 도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

해 필요한 인구 3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 글에서는 대마도에서 한일 관계의 상징인 대마도 아리랑 페스티벌의 설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해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낀 국경 섬인 대마도는 항상 양국 관계의 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으며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정체성을 재구성해 왔다. 근대 이후, 일본 본토와 한국 식민지의 경계에 있는 대마도 주민들은 한반도 남해안과 일종의 단일 생활권을 형성했다. 이런 환경은 한국이 해방된 후 갑자기 바뀌었다. 대마도는 한반도로의 자유로운 통행이 불가능해지자 일본 당국이 일본 여행을 시도하는 한국인 밀입국자들을 단속하는 '관문(gateway)'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한반도가 분단되고,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일부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세워지고, 남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마도는 한반도 비상 사태에 대비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최전선의 보루'로 여겨졌다. 또한 해방 이후 미군정(일본과 같은 노선)의 신탁통치하에 자본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한 한국도 1948년부터 대마도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대마도 섬 주민들 사이에 스스로를 '한국 반일 정서에 대한 최전선의 보루'로 여기는 위기 의식도 높아졌다. 대마도가 '국경 섬'으로 전환된 것은 한반도와의 역사적 유대가 단절됨을 의미했다.

그러나 1965년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한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대마도는 국경 섬에서 한일 관계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그림 1에서 보듯 1980년 이즈하라 항만 축제(1988년부터 대마도 아리랑 축제로 개칭)에서 조선 사신들의 행렬을 재현한 퍼레이드가 등장하면서 대마도가 한일 교류의 섬으로 탈바꿈하는 데 가속도를 붙였다. 시

작은 일본인 사업가가 조선 시대 사절 행렬 연구에 전념했던 재일 한국인 신기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였다. 신 씨는 이러한 행렬의 재현을 축제에 소개하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이는 지역 진흥 사업의 일부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1992년부터는 조선 사신들의 유사한 행렬 재현 행사가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조직되었다. 이들은 이 행렬 재현 행사의 취지에 대해 "동아시아에 간접적으로 평화를 가져온 재일동포 친선의 역사적 자산인 조선통신사 행렬의 바탕인 상호 성실과 신뢰의 정신을 후대에 전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림 1. 1996년 서울에서 열린 '조신시대 사절 행렬을 따라가다'에 전시된 이태길 작(作) 대마도 아리랑 축제

그러나 대마도를 '국경 섬'에서 '한일 교류의 섬'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50~60년대에는 숯 산업과 밀수가 대마도의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1965년 외교 정상화에 따른 한일 무역의 합법화와 석탄-석유 에너지 전환은 대마도 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대마도는 한국과의 정상적 교류를 통해 지역 경제를 재건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섬의 경제 전략이 관광 산업에만 치중되면서, 섬의 개발은 한국 관광객의 유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이런 한일 교류의 밑거름이 된 조선통신사 행렬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마도 아리랑 축제는 한일 양국의 복잡한 역사적 전개를 단순화하여 한일 우호의 선택적 기억만을 강조했고, 다른 역사 즉,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대마도 주민들에 의해 착취당한 조선인의 존재는 삭제되었다.

2019년 한일 갈등은 1980년대 이후 한일 교류가 추진된 이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기억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현재의 상호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또

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섬인 대마도가 다른 기억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대마도의 공존과 번영의 길이 포용적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